인쇄 전 과정 "통합 프린팅 시스템" 구축

인쇄 패키지 솔루션 통해 친환경 기업 인정받아

서 명 현
(주)태신인팩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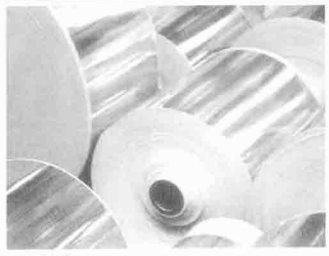
각종 신기술 개발과 축적된 노하우로 국내 인쇄문화 발전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해 온 (주)태신인팩(대표이사 서명현)은 고객우선주의를 기본으로 충북 청원군에 자리잡고 있는 토탈 인쇄전문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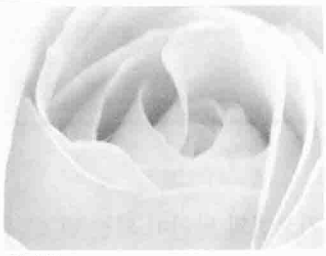
1968년 서울 영등포구 신대방동에 유덕산업으로 창립된 태신인팩은 1975년 태신인쇄공업(주)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1985년 골판지, 방습, 합지 공정을 갖추었다. 1987년에는 인쇄업계 최초로 토탈 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IBM system/35을 도입하는 등 업무 전산화를 이루게 된다.

2002년 현재의 (주)태신인팩으로 상호를 변경, 지난 해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 가동했으며 생산정보화 사업(POP)도 구축했다.

그동안 태신인팩은 1996년 통상산업부로부터 GD마크

▲ 친환경 소이잉크


특수지


향인쇄

메탈/수성코팅

▲ 태신인팩의 연구 및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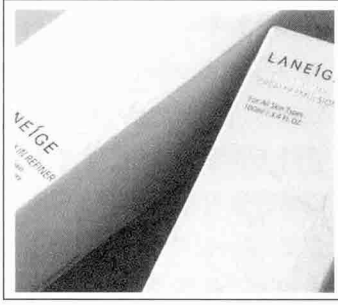
획득을 시작으로, 우수산업디자인 포장디자인 부문에 선정, 더 나은 인쇄재료와 인쇄기법을 지키기 위한 태신을 노력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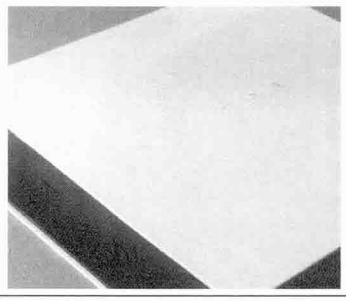
또한 제품과 서비스 활동 부문에서 국제 표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2002년에는 ISO 14001인증을 획득했으며, 2004년 ISO 9001, 14001 통합 인증을 획득하는 등 명실공치 선진화된 인쇄환경을 인정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도 주력, 2005년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국가환경경영대상 유공자 부문에서 서명현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훈하는데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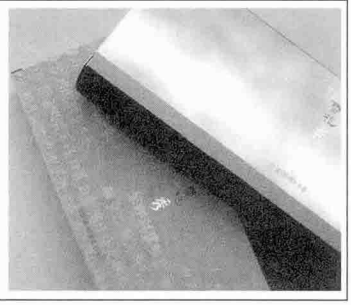
태신인팩은 "인쇄기술은 자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기술"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인쇄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고민하고 있다.

이런 태신인팩의 친환경 경영은 태신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와 환경 측면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먼저 태신은 태양광 자가발전소 운영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으며 각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동의 경우, 에어샤워를 설치,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유해요소가 침범하는 것을 완벽 차단해 청청 인쇄 건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 태신인팩 제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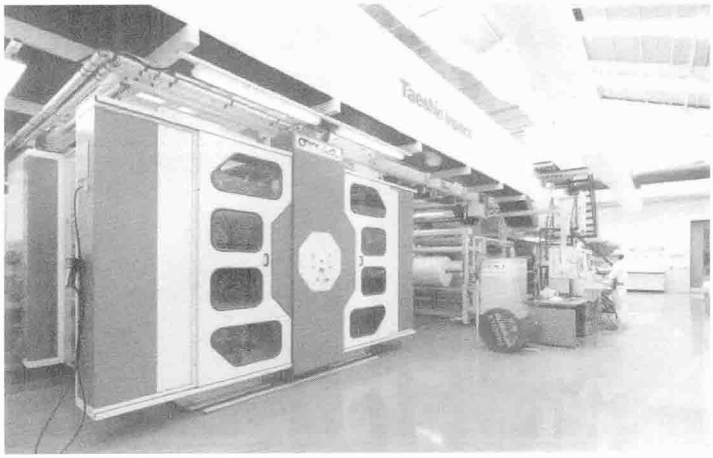
TAE SHIN

2006년 태신인팩은 자체기술로 개발한 소이잉크(Soy Ink)를 통해 다시 한번 친환경 기업의 면모를 과시했다.

1970년대 후반의 미국 오일쇼크 이후, 석유계 용제를 대체할 식물성 기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환경보호 운동과 미국 농업단체의 콩기름 제품 확대 의도로 개발되된 소이잉크는 기존의 잉크용제로 사용되고 있는 광물기름을 콩기름으로 대체해서 사용함으로써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삭감을 목표로 개발됐다.

그러나 기존 소이잉크는 건조가 느리고, 원재료 가격의 압력으로 상용화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

태신의 소이잉크는 작업자와 소비자 안전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종이의 재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밝고 선명한 색상구현은 물론, 내광성이 향상되어 인쇄 후 변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태신인팩의 청정인쇄 건물인 식품동

태신인팩 관계자는 "소이잉크 사용은 비용부담을 스스로 감수하면서도 인간과 환경에 해로운 잉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태신인팩의 의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전했다.

인쇄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부터 첨단의 특수 인쇄기법에 이르기까지, 또한 최종 인쇄물의 용도에 따른 다양한 후가공 과정을 거치기까지 태신인팩은 인쇄의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한 작업장에서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프린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종이운반 로봇을 자체 개발, 지류창고에서 지정된 인쇄기까지 자동으로 종이를 공급하고 있으며 컴퓨터 데이터에서 필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쇄판을 만들어내는 CTP 기술로 고품질의 인쇄를 실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필름 폐기가 야기시키는 환경오염의 가

▲ 태신인팩 창사40돌 기념 리셉션에서 태신인들

능성을 원척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잉크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잉크 디스펜서, 최첨단 스탬핑 인쇄를 가능하게 하는 인라인 포일러 등의 공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라인 UV 코팅기, 써멀 라미네이팅기, 고속형 자동 지함 라인 등을 보유 40여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세계 일류 수준의 인쇄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그동안 태신인팩은 다양한 인쇄물을 통해 주어진 기술과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실험을 지속, 미래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지류 표면을 자체적으로 다양하게 가공해 새로운 느낌의 종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며 향의 원액을 마이크로캡슐화하여 인쇄물 일부분에 도포, 인쇄된 제품의 향까지 맡는 것이 가능한 첨단의 인쇄기술인 "향인쇄"를 연구,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통해 다양한 소비층을 겨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메탈 및 수성 코팅에 있어서도 종이 인쇄 활용의 폭을 확장하고, 유기용제를 벗어난 수성코팅으로 환경 오염의 요인을 제거했다.

이렇게 태신인팩은 인쇄의 궁극은 '자연 그대로를 재현하는 일'이라는 변함없는 신념으로 무한인쇄를 위해 도전해 오고 있다.

지난 8월 26일 (주)태신인팩은 창사 40주년을 맞아, 창사 40돌 기념행사를 진행, 앞으로도 포장 인쇄사업이 지구 온난화 억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문산업이라는 신념을 갖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 이래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축적된 인쇄 패키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최고의 품질만을 추구해 온 태신인팩.

세계속의 패키지 제조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태신인팩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ko

박초혜 기자